

‘차’ 지역경제의 ‘효자’



①익산시가 복원하고 있는 울포면 합라산 임해사 터 차밭. 이곳은 북위 35도 3분으로 우리나라 차나무 분포지역으로는 최북단이다. ②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복원된 다정. ③초의 선사 생가. ④ 초의선사 기념관 모습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차문화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전북 익산시는 국내 차밭으로는 최북단(북위 36도3분)에 위치한 울포면 합라산 임해사(臨海寺) 터 차밭을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예정이다. 임해사 터 차밭은 차나무 자생 한계로 알려진 전북 김제시 금산사 일대(북위 35도13분) 보다 30여km 북쪽에 위치해, 우리나라 차나무 분포지역으로는 최북단이다.

시는 차밭 복원을 위해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5천 6백여 평에 달하는 묘목장을 만들었으며, 11월 중으로 24만 그루의 차나무 묘목을 파종한다.

또한 국가사적지인 입점리고분군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하는 한편, 소양이지만 고급차를 직접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익산시 농업기술진흥청은

“차나무 재배를 통해 파생되는 상품을 관광과 연계시킬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해사 터 차밭과 관련해 다양한 관광 상품과 차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해사 터 차밭은 임해사가 소실된 조선 초기 이후에 야생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북대 박용구 교수는 “임해사는 익산 합라산 송림사의 말사로, 1486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그 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임해사 터 차밭에는 현재 3천 3백여 평에 1만 그루의 1~30년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곳의 차나무가 겨울에 추위를 이기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찬바람을 막아 온도 변화가 적고 다습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남 무안군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의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일대를 ‘다도(茶道) 성지’로 재단장할 예정이다.

1997년부터 40여원을 들여 초의 선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차문화관, 기념전시관을 건립한 무안군은 ‘1단계 초의선사 현상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제2단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

곳에 35여원을 투입, 차(茶) 교육관, 다정(茶亭) 등을 지어 다인들의 순례코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1월 1일 밝혔다.

내년 4월 경 완공될 ‘차 교육관’은 81평 규모로, 다도 교육과 초의선사 사상 교육장, 군민들의 차 관련 행사장으로 활용된다. 또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 등 5개관으로 구성될 각 50평 크기의 역사관은 내년에 우선 ‘조선관’을 짓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차 역사관 등과 인접한 봉수산에 5평 크기의 다정 5개를 건립해 순례코스로 가꾸어 나가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초의 선사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 차 단지를 조성하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음력 4월 5일)를 전후해 초의 브랜드 차 제품,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익산시 임해사터 차밭 복원, 관광지화 24만여 그루 심어 생산 판매·상품 개발

무안군, 초의 선사 다도순례 코스 추진 역사관·교육장 활용 소득증대 기대

“차, 알츠하이머병 방지에 효과”

차를 자주 마실 경우 기억력 증진과 알츠하이머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진은 <식품요법연구>지에 발표한 글에서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두뇌의 일부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개발에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차와 홍차는 모두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와 부티릴콜린에스테라제 효소의 작용을 억제했으며, 특히 녹차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잔류물 생산에 관여하는 베타세크레타제의 작용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차인연합회 ‘청소년 차문화대전’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11월 13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제 12회 대한민국 청소년 차문화 대전’을 개최한다. 청소년의 차생활과 예절문화 보급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차인연합회 전국단위차회장의 추천을 받아 예선을 거친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02)747-0474

명원문화재단 ‘국제청소년 차문화대전’



지난해 11월 열린 제4회 국제 청소년 차문화대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례 시연을 하는 모습.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제5회 국제 청소년 차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우리 전통차문화를 연구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02)742-7190



유경익 교수의 차 문화사

5. 삼국시대 ③ 이 시기에는 차가 전래된 또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진다. 곧 불교의 전래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될 때부터 차를 불전에 올리는 것이 의식화되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동진의 임금 부견이 승려 순도를 시켜 고구려에 불전(佛典)을 보낸 것은 그 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교가 빈번해지면서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으니 많

은 물품들이 거래되었고 당연히 음료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는 중국의 문물이 많이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때를 우리 차가 뿌리내린 시기로 본다.

불교 전파·고구려 융성, 차 전래 한 몫

① 동진 왕의 사자로 순도 스님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했고 다음 해에 아도 스님이 백제에 불교를 전했으나, 이 때 차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본다. ② 광개토태왕 때이므로 문화의 수입이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므로 향이나 찻그릇도 많이 들어왔다. ③ 왕이 절을 참배하고 불공을 드린다는

것은 국가적 의례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분향, 헌다가 따랐을 것이다.

④ 하우개 동진사람. <거신기>에서 그는 평소 차를 좋아했는데 죽어서 귀신이 되어 집에 와서 차를 마셨다고 했다. 이는 제례

때 차를 올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거사 <식기(食忌)>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날개가 돌린다고 했다.

단도개 동진의 스님이었다. 항상 조악한 옷과 밥상을 대하며 차를 마시고 잠을 쫓고 백세를 넘겼다. <예술전(藝術傳)>

<사왕기> 동진의 여림이 찬한 책으로 해제(사마총)가 난리를 피웠다가 낙양으로

돌아오니 환관이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⑤ <광능기묘전>에 차 파는 늙은 할머니의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⑥ 도잠(陶潛, 365-427) 동진인이다. <속수신기>에 진정(秦精)이 차 따러 갔다가 모선(毛仙)을 만난 얘기를 썼다.

⑦ 유익경(403-444) 남조의 왕족, 그가 쓴 <세기신어>에 차에 관한 얘기가 여럿 전한다.

⑧ 도홍경(456-536) 남조의 도교사상가. <본초경집론> <명의별록>을 쓰고 “차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체형이 달라진다”고 했다.

⑨ 왕숙(461-501) 북위사람. 남제에서 북으로 망명하여 차를 마셔보고 ‘낙노(酪奴)’라는 말을 했다. <명정가미기>

기원전 시대		
한 국	중 국	서양기타
372 고구려 불교전래 ①	④ 허우개, 호거사, 단도개, 사왕기 ④	
375 사할 건립(초문사, 이불란사)	350 <광능기묘전(廣能耆老傳)> ⑤	
384 백제 불교전래(한산에 불찰건립)	365 도잠 ⑥	392 로마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함
381 고구려에 향과 다기(茶器) ②	④ 임목정이 다명(茶名)을 물었다.	
393 평양에 구사 결비 @ 사할건립 확산	남북조 시대	
451 송(宋)에 조공(고구려, 백제)	403 유익경 ⑦	
	420 송의 건국	
	439 남북조의 시작	
479 도리사(佛李寺) 창건	454 <삼월지>에 과라(過羅, 차)가 나옴	476 서로마 멸망
488 왕이 흥륜사에 헌공 ③	456 도홍경 ⑧	
	464 왕숙 ⑨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나요? 차에 가까이 계시나요? 그럼 매달, 월간『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기공안내 氣功案内

-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 ◆6세 미만 병어리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병 아이들을 경기 톱, 확실합니다.
-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 ◆불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중,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기공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생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빌 1212호 (교대정문사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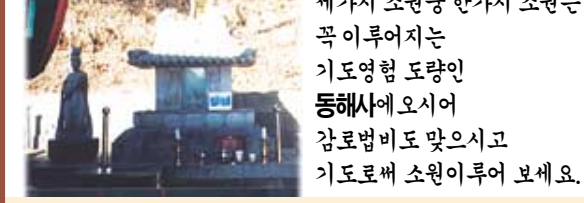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담사 10분 소요
▶ 비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충주차장 완비